



팬 위한 이승엽의 각오 “새 야구장에서 우승을”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입니다. 이번 역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있는 대공원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야구장에 오셔서 힘찬 함성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열차 내 안내방송이다. 이승엽(40·사진)은 대구지하철의 안내방송 녹음 제안을 “당연히 해야죠”라며 한결같은 달려갔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라도 새 야구장 근처를 자주 지나갔다. 이승엽은 “오늘은 얼마만큼 지어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마음으로 차를 돌려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새 야구장을 지나갔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나 보다”며 웃었다.

지난해까지 삼성의 홈구장이었던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은 이승엽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 장소였다. 2003년 당시 아시아 단일시즌 최다홈런이었던 56호 홈런을 날린 곳이고, 2002년 극적인 홈런으로 팀에 역사적인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긴 장소이기도 하다.

작별은 아쉽지만 이승엽은 19일 개장하는 라이온즈파크를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자주 “대구시민운동장은 추억이 많지만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좋지 않아 관중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많다”는 말을 했다. 19일 새 야구장 개장을 앞두고는 “그동안 팬들을 위해 신축구장을 열망해왔다. 많이 기대된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2년 후 은퇴를 결심했다. 새 야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할 수 있도록 은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앞으로 홈런 25개를 더 터트리면 한·일 통산 600홈런, 안타 140개를 더 치면 KBO리그 통산 2000안타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라이온즈파크 첫 우승까지... 새 야구장에서 이승엽이 팬들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순간들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삼성라이온즈파크 19일 개장식 레전드-연예인야구단 자선경기

삼성의 신축야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19일 개장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출발한다.

대구광역시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19일 개장식을 열고 축하공연과 자선야구경기 등 시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시민화합 야구대축제’란 이름으로 낮 12시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개장식에는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삼성 구단 관계자, 구본능 KBO 총재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다. 또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시민 2만5000여명도 동참해 대구의 새로운 야구장을 맞이한다.

개장식 식전행사로 는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야구장 투어와 함께 초청 가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공식행사에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개장 선언과 함께 개장식 세리머니가 진행된다. 공식행사 후에는 삼성 출신 레전드 선수단과 연예인연합야구단이 맞붙는 자선경기가 7이닝으로 열린다. 경기에 앞서 수익금의 일부를 유소년 야구단에게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자선경기가 끝나면 참석한 팬들을 대상으로 라이온즈파크에 대한 다양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삼성 선수단 사인볼을 증정한다.

대구시는 당일 혼잡에 대비해 지하철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버스노선을 늘리는 등 대중교통을 확대·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축구장과 인근 임시주차장(노상주차장·대구스타디움·대구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고봉준 인턴기자 mysoul17@donga.com

“팬들과 더 가깝게” 접근성·편의성 곳!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과 바로 연결 이벤트 잔디식·클럽하우스 등 시설 최상

지난해까지 삼성의 대구 홈경기 주말에 열릴 때면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 인근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었다. 기존 대구구장의 총 관중석은 1만석 규모로 크지 않지만, 구장 앞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협소했다. 불법주차와 노점상 등으로 인해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차장도 매우 비좁아 경기를 뛰는 선수들조차 이중삼중으로 주차할 때가 많았다. 종종 삼성의 훈련시간에 구단 직원이 달려와 선수들에게 자동차 키를 받아 차를 이동시키는 일도 있었다. 지하철역도 가깝지 않고 버스 접근성도 떨어져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가 어려우니 시민운동장은 야구팬들에게 가깝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장소였다.

19일 개장하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화려하다.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접근성에서부터 옛 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내부시설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관중의 시선에 맞춰 설계하고 건설돼 이리 그대 로 공원 같은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있는 새 구장

대구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4·5번 출구로 나와 고개를 들면 바로 눈앞에 지상 5층 높이의 연면적 4만6943㎡에 이르는 대형 야구장을 만날 수 있다. 삼성 류종일 감독은 “야구장이 참 밖에서 봐도 예쁘고 안에서도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다면 시민들에게 공모해 이름을 정한 ‘야구전설로’를 통해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단, 주차장은 1117대 규모로 관

중석 2만4274석 규모에 비해 많지 않다. 대구시는 당초 대구육상진흥센터에 새 야구장을 건설하고 300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하철역 인근이 더 많은 시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현 부지를 선택했다.

●관중이 즐겁다!

라이온즈파크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관중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정했다. 스카이라이프 형식의 ‘스위트박스’ 30개가 내야석 상단에 설치됐다. 최대 30명이 간단한 파티를 하며 야구를 볼 수 있다. 냉·난방 시스템도 갖췄다. 팬들에게 더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해 1·3루와 관중석 거리를 18.3m로 좁혔다. 외야에는 1200석의 잔디석을 마련해 소풍도 가고 야구도 보는 이벤트 장소를 마련했다. 삼성은 앞으로 관중석 곳곳에 수영장과 바비큐 좌석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수영장은 여름철 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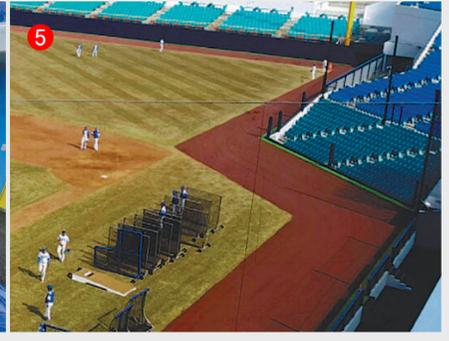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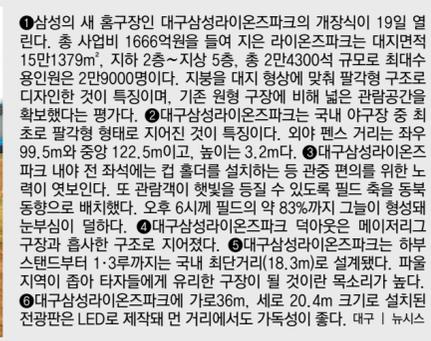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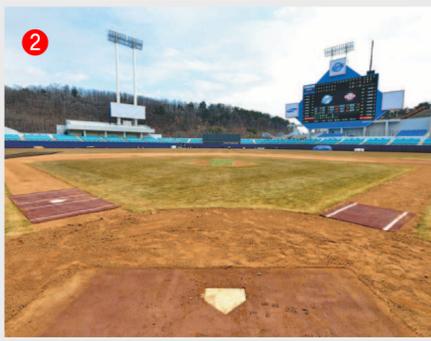
운 날씨의 대구에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좌석은 좌우폭 50cm에 앞뒤 거리 85cm로 체적이 큰 성인도 불편함 없이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선수도 즐겁다!

관중을 위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라운드엔 많은 공을 들였다. 메이저리그에서 사용하는 내야 흙을 수입해 그라운드를 다졌다. 류종일 감독은 “불규칙 바운드가 잘 나타나지 않는 단단한 흙이다. 부상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구장 부럽지 않은 실내훈련장과 클럽하우스, 사우나 시설 등도 자랑거리다. 류 감독은 “한 가지 더 자랑한다면 홈(3루)과 원정(1루) 커아웃 시설이 완전 똑같다. 손님들(원정팀)을 잘 대접하기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다”며 웃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사진으로 보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좌우 펜스 거리 짧고 파울지역 좁아 “홈런타자에게 유리”

■ 팔각형 구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외야수들 펜스 플레이 빠른 적응 필요

삼성의 새 홈구장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19일 개장한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삼성은 34년 만에 새 구장에서 새 시즌을 맞이한다. 특히 라이온즈파크는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장’이

다. 이 같은 특성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출판공정?

KBO리그에서 삼성을 제외한 9개 구단 홈구장(고척스카이돔 포함)의 외야 펜스 형태는 타원형이다. 그러나 라이온즈파크는 직선이다. 라이온즈파크의 외야 펜스 거리는 좌우 99.5m와 중앙 122.5m이고, 높이는 3.2m로 기존 대구구장(좌우 99m·중앙 122m·높

이 3.1m)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직선 펜스의 특성상 좌우 거리가 짧아진다. 파울 지역도 좁아 타자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삼성 류종일 감독은 “대구구장과 비교해 6m 정도 짧더라. 홈런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외야수 적응이 관건, 장타는 줄어들 듯

수비는 외야수들의 빠른 적응이 과제다. 초반에는 이전과 다른 펜스 형태 때문에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에 맞는 타구가 나오면 외야수들은 효과적인 펜스 플레이를 통해 주자의 진루를 억제해야 한다. 펜스 거리와 형태는 물론 타구 속도까지 고려해 수비 위치를 잡아야 한다. 펜스 형태가 바뀌면서 계산법이 이전과 달라졌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또 유독 김승이 파인 좌·우중간(123.4m)을 완전히 꿰뚫는 타구가 아니라면, 3루타를 구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짧은 좌우 거리는 발이 느린 타자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 펜스를 직격하는 큼직한 타구를 날리고도 단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